

2019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버럭 07월호



발행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행인: 정종남 편집: 편집위원 발행일: 2019년 07월 31일

홈페이지: <http://www.kbcil.co.kr> 전화: 908-7776 팩스: 0303-0799-1758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5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연극 관람(수상한 흥신소)



▲ 5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전회의 모습



▲ 연극 '수상한 흥신소' 관람

6월 12일(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어울림' 5차 사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전회의에 따라 6월 19일(수) 연극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12일(수)에 열린 사전회의는 회장 송○○씨의 지각으로 부회장 김○○씨의 수줍은 인사말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5차 사전회의는 '5차 자조모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와 '5차 자조모임 후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라는 안건으로 진행되었고 회의 결과, 연극을 보고 싶다는 의견과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연극은 참여자들의 투표로 '수상한 흥신소'를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월 19일(수), 연극관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이동하기 전 수유역 인근 중국집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점심식사 후 대학로로 이동하는 도중 참여자들은 연극을 처음 보게 되어 기대된다며 설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시작 전 공연 에티켓에 대하여 이야기한 뒤 공연을 관람하며 진행에 무리가 없었으며 '수상한 흥신소' 연극을 보며 즐거워서 웃고 감동받아 울기도 하는 참여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5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통해 처음으로 연극을 접해보아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기대하며 5차 자조모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제13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5강 ~ 6강



▲ 5강 강의진행 모습



▲ 6강 강의진행 모습



▲ 수료증 전달 모습

제 13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5강 ~ 6강이 6월 25일 ~ 7월 2일(매주 화요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6월 25일 진행되었던 5강은 ‘장애인자립생활의 철학적 고찰’에 대해 정종화 교수님(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께서 진행해 주셨으며, 자립생활의 가치 목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장애인 인권이 평소에도 중요하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7월 02일 진행되었던 6강은 ‘장애학과 당사자주의’에 대해 전지혜 교수님(인천대학교 사회복지교수)께서 강의를 해주셨으며,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삶에 대한 근본적 가치 탐구를 모색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이번 19년도 제13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는 이룸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5월 28일 ~ 7월 2일까지 총 6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은 배움의 열기로 매 강의를 꽉 채워주셨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 중인 실무자들이 다수 참여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진정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인권 감수성을 키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 · 일 최종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단체사진



▲ 토론회 진행 모습

7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한·일 최종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52시간 근무제와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뤄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첫 시간에는 리츠메이칸 대학 대학원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께서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일본에 사례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에 이어 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장익선 위원장께서 활동지원사에 특례업종 제외로 인해 근육장애인 생명권에 위협이 되면서 활동지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무급노동을 하게 되는 현실 등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첫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시간이 되자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패널로 한국ALS협동조합,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공익인권변호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많은 기관에서 참여 해주셨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각자 준비해오신 내용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진행 해주셨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렴하여 차후 정책결정시에 참고한다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잘 수렴하여 최종증장애인분들에 생명권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씨 4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가족공예 체험)



▲ 안○○씨 4차 개별ILP 가족공예 체험

6월 20일(목) 안○○씨 4차 개별ILP의 일환으로 가족공예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씨는 퍼즐과 같은 손으로 하는 활동을 좋아한다고 하여 가족공예체험을 제안하였더니 마침 지갑이 필요했다고 하며 가족공예체험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씨는 만드는 방법이 쉽고 휴대성이 좋은 목걸이 카드지갑과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수납성이 뛰어난 반카드지갑을 두고 고민 끝에 수납성이 좋은 반카드지갑을 선택하였습니다.

평일이지만 가족공방에는 다양한 체험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안○○씨는 원하는 가족 색과 지퍼 색을 고르고 기다리니 선생님이 오셔서 기초 작업방법을 안내해주셨습니다. 가족에 밑그림을 그린 후 모양에 맞춰 자르고 본격적인 바느질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느질 하는 방법이 어려워 안○○씨는 잘 따라가지 못하였지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바느질을 끝마친 후 예쁜 반카드지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지갑을 들고 기뻐하는 안○○씨는 다음에도 하고 싶다는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며 가족공예체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임○○씨 4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관람)



▲ 임○○씨 4차 개별ILP 뮤지컬관람 진행

6월 26일(수) 임○○씨 4차 개별ILP의 일환으로 뮤지컬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씨는 직장생활이 바빠 문화체험을 하지 못했다며 뮤지컬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임○○씨는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를 보고싶다는 의견을 담당자에게 주어 6월 26일 오후 3시 4차 개별ILP 뮤지컬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26일 3시에 ‘안나 카레니나’를 보는 동안 자신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를 보고 들으니 너무 재밌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뮤지컬이 끝난 후 임○○씨는 오랜만에 뮤지컬을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다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을 보러 오고 싶다는 말을 하며 직장생활로 바쁘지만 개별ILP를 통해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원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를 나누며 뮤지컬 관람을 끝마쳤습니다.

안○○씨 5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음악회 관람)



▲ 5차 개별ILP 음악회 티켓 수령하는 안○○씨



▲ 안○○씨 5차 개별ILP 음악회 관람 진행

7월 17일(수) 안○○씨 5차 개별ILP를 진행 하였습니다.

평소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는 안○○씨는 음악회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안○○씨는 자신이 관람하고 싶은 서울팍스오케스트라 공연일정을 찾아 보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별ILP로 음악회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씨가 보고 싶다고 얘기한 서울팍스오케스트라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OST 등 다양한 음악을 아울러서 연주하여 클래식을 잘 모르더라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연주회였습니다.

안○○씨는 음악회를 관람하면서 평소 좋아하는 OST가 나올 때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인터미션 시간에도 무대를 바라보며 기념사진을 찍고 정말 좋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했습니다. 100분이라는 길지만 짧은 시간이 지나 음악회가 막을 내린 후 피곤할 수도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씨는 해맑게 웃으며 재밌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개별ILP는 다채로운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체험자인 안○○씨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였고, 동시에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며, 다음 번 6차 개별ILP 또한 안○○씨의 의견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6차 사전회의와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



▲ 6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전회의 사진



▲ 6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액자 만들기 단체사진

7월 10일(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어울림’ 6차 사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전회의에 따라 7월 17일(수) 액자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10일(수)에 열린 사전회의는 사회복지 실습생 이○○씨의 소개와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6차 자조모임 프로그램은 실습생 이○○씨가 액자 만들기를 계획해보았으나 ‘어울림’ 사전회의 특성상 담당자의 의견만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이를 논의해보았습니다. 회의 결과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식사는 참여자들의 투표로 컵밥을 먹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월 17일(수), 참여자들은 강북센터 교육실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점심식사 후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정리한 뒤 휴식 시간을 가지며 오순도순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은 스텝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완성된 액자를 보며 만족해하는 모습과 무슨 사진을 넣을지 고민하는 참여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6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통해 구성원들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의견과 함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겠다고 다짐하며 6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신○○씨 5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심리 상담을 통한 성교육)

7월 23일(수) 신○○씨의 5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을 강북센터 인근에 위치한 굿씨상담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신○○씨 상담센터 방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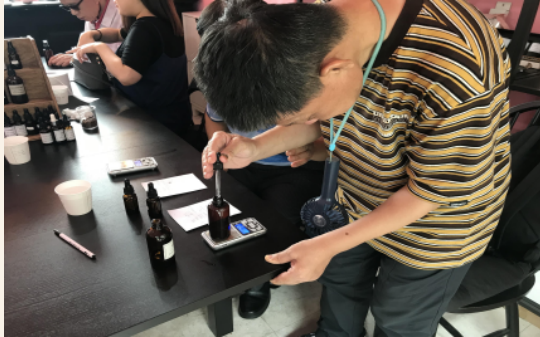
▲ 심리 상담을 통한 성교육 진행 모습

체험자 신○○씨는 아버지의 과잉보호로 인해 성인이 되었음에도 위생관리를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하고자 ‘심리 상담을 통한 성교육’을 5차 개별 ILP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센터에 도착하신 신○○씨는 직접 초인종을 눌러 상담센터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강북CILP 담당자가 ‘신○○씨, 좀 있다 만나요’라고 이야기하자 상담실로 들어간 뒤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씨는 심리 상담을 통한 성교육이 끝난 후 밝게 웃는 모습으로 상담실을 나왔으며 상담가에게 배꼽 인사를 하며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습니다.

체험자 신○○씨가 낯선 환경에서 처음 보는 타인과 상담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였으나 즐거워하는 참여자의 모습을 보니 지속적인 개별 ILP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을 통한 성교육을 통해 타인이 씻겨주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타인이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할 경우 거부의를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기로 하였으니 다음 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신○○씨의 모습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씨의 6차 개별 ILP은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통한 성교육을 받고 싶다는 체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리 상담을 통한 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형 주택 여가문화체험프로그램 나만의 향수 만들기(섬유향수)



▲ '나만의 향수' 만드는 모습



▲ '나만의 향수 만들기' 완성

6월 26일(수) 가형 주택 여가문화체험프로그램 이태원 마크컬렉션 '나만의 향수 만들기(섬유향수)' 체험 진행을 하였습니다.

입주자분들이 여름철 뽀뽀한 날씨에 시원하고 향기로운 느낌을 느끼고자 계획한 체험 프로그램 이였으며, 씻는 것을 싫어하시는 입주자분들에게 향기로운 향이 내 몸에서 날 때에 기분 좋음의 감정을 인식시켜주고자 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체험 진행 시 입주자분들 모두 활동지원사 선생님, 코디네이터와 짝을 이루어 내가 좋아하는 향, 싫어하는 향을 구분하여 30가지가 넘는 향수들을 시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든 향수는 14일 이후 개봉할 수 있어 입주자 분들 모두 개인 방의 책상과 서랍 등에 비치하였으며 자신이 만든 향수의 향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말하시는 모습도 보이며 으쓱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다형 엄○○씨 입주파티 여가·문화체험(화분 만들기)



▲ 다형 자립생활주택 여가·문화체험 프로그램 (화분 만들기)

6월 21일(금) 다형장애인자립생활주택 여가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입주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택에서 식물을 기르고 직접 기른 열매를 수확하여 먹을 수 있도록 블루베리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다육이와 백합 모종을 구매하여 직접 분갈이를 하여 화분에 옮겨 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 화분마다 이름과 예쁜 말을 써주어 이름표를 꽂아 두었습니다. “꽃이 너무 예뻐요. 매일 예쁜 말 해주고 잘 키울게요.”, “블루베리 맛있어요.” 라며 금일 활동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자립주택 다형 엄○○ 입주파티

6월 24일(월) 다형 입주자 엄○○씨 입주파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 입주하게 된 엄○○씨의 입주파티를 진행하였고, 성민복지관 관계자분들도 먼 길까지 오셔서 함께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파티를 한다고 미소를 지으며 들떠있는 모습을 보인 엄○○씨는 막상 파티가 시작되니 자신이 주인공인 파티가 처음이라 어색한지 축하 노래를 불러주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뒷정리를 하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금일 진행 된 입주 파티가 어떠냐고 물으니 “좋아요.” 라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7월 중 입주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외식문화체험과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습을 마치며..



▲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사전 준비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프로그램 진행

7월 1일(월)부터 7월 26일(금)까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 실습을 진행 한 실습생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강북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도와 사업 보조 및 행정 보조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 후 평가까지 해보며 사회복지실천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또한 강북센터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많은 장애인분들과의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북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졸업 후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즐거운 실습이었습니다!!

이달의 정보

<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주요 정책과제 >

1. 장애인 고용 확대

- 1-1. 적극적 직무분석으로 일자리 발굴 확대
- 1-2.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 1-3. 장애수험생 편의지원 확대
- 1-4.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 1-5. 장애인 맞춤 직무배치 지원

2.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2-1.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확대
- 2-2. 장애인 공무원 복무 개선
- 2-3. 장애인 공무원 맞춤형 출장지원
- 2-4.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점검
- 2-5. 교육 편의제공 표준지침 마련

3. 공직 내 장애감수성 확산

- 3-1. 장애인식개선 직장교육 강화
- 3-2. 인사담당자, 관리자 교육 강화
- 3-3. 일상적 장애인식개선 활성화
- 3-4. 정기적 인식조사·실태점검
- 3-5. 공직 적응지원 및 소통 확대

◀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주요 정책과제.
©인사혁신처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공무원 요건 완화

인사혁신처, 경력 3년 → 2년 등 인정범위 확대, 맞춤형 출장지원 편의서비스 확대 환경 개선

앞으로 공직 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고용촉진기금'을 통한 근무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장애인 공무원들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와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및 실태조사 등 현장의 소리를 담아 마련했다.

특히 그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양적 확대에 머물렀던 것에서 나아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반 여건 구축, 장애 공감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력채용 요건 완화... 경력 3년 → 2년, 석사 → 학사

인사혁신처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부처별 직무분석을 통해 정부 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 확대할 예정이다.

경력채용 요건 완화 등 관련 시험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예를 들면, 현재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2년이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학위 또한 석사 이상에서, 학사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식.

또한, 공채시험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수험생 맞춤형 편의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사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90717083123296047>

이달의 정보

코레일, 추석 예매부터 장애인 서비스 모바일로 확대

시각장애인 소요시간 고려해 30분으로 연장.. 추석 승차권 예매 8월 20일 ~ 21일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이 다음달 20일과 21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번 추석부터 장애인(사전 등록절차 완료 회원)에게 제공됐던 예매 서비스가 모바일로도 확대된다.

장애인 예매 서비스는 ‘여행정보 미리 설정하기(사전에 희망 날짜, 열차종류, 구간 등의 여행정보를 미리 저장’ 와 ‘접속시간 연장’ 서비스다.

지난 24일 코레일은 올 추석 승차권을 다음달 20일과 21일 이틀간 온라인과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0일은 경북,경전,동해,충분선 등의 승차권을, 21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는 기존과 같이 오전 7시 ~ 오후 3시까지다.

또한 예매를 위해 새벽부터 기다리는 고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역과 승차권 판매대리점의 예매 시작시간을 오전 8시로 1시간 당겼다.

기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사전 등록절차 완료한 회원)에게 제공됐던 예매 서비스는 오 추석부터 모바일로 확대된다.

‘접속시간 연장’ 서비스도 텍스트 리딩 등의 소요시간을 고려해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예매는 승차권 예매 앱인 ‘코레일톡’ 에서 할 수 없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누리집(www.letskorail.com)에 접속해 예매해야 한다.

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누리집(www.letskrail.com)을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출처-<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0122>

2019년 07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숙이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김지연 민하나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운동현 윤두선 이동현
이상훈 이영훈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정진경 주영경 최미경 최윤숙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안내

후원계좌 : 국민은행 822401-04-025866

예금주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 : 02-908-7776

CMS 신청하실 분은 전화주세요~

※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센터 프로그램 모집 · 홍보 합니다~~!!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보수교육 ‘너의 보석돌이 되어줄게’	
사 업 명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보수교육 ‘너의 보석돌이 되어줄게’
일 시	2019년 08월 30일(금) 14:00 ~ 18:00
장 소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 170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707호)
교육대상	서울 거주지역 장애인 기초·심화 수료자
신청기간	2019년 8월 23일(금) 오후 5시까지
신청서류	신청서, 복지카드사본(앞·뒷면)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쌍방의 마음’	
사 업 명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쌍방의 마음’
일 시	2019년 9월 19일(목)
장 소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 170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707호)
모집대상	서울지역 거주 발달장애인
신청서류	신청서, 복지카드사본(앞·뒷면)
신청기간	2019년 9월 16일(월) 오후 5시까지

프로그램 신청방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daum.net 및 사무실
(수유역 가든타워 1119호) 방문접수

기타문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08-7776 ✉ kbcil@daum.net

※ 위 일정은 센터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